



멀티골 구자철 대회 최다골 도전

구자철이(오른쪽) 11일 오전 카타르 도하 알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컵 C조 한국 대 바레인 경기에서 첫 골을 성공시킨 후 이청용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다 기록은 최순호 7골... 2차전 상대는 난적 호주, 14일 밤 결전



2011 아시안컵 축구대회 조별리그의 서전을 화려한 승리로 장식한 태극전사들이 의미있는 도전에 나선다. 바로 선배들이 역대 아시안컵에서 쌓은 각종 기록과 징크스를 깨는 일이다.

한국은 1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컵 바레인과의 첫 경기에서 전반 40분과 후반 7분 두 골을 성공시킨 구자철(22·제주)의 활약에 힘입어 2-1로 완승을 거뒀다.

후반 38분 광태휘의 퇴장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아시안컵에서 두 차례 만나 모두 패배를 안겨준 바레인에 설욕하며 51년만

의 우승컵을 향한 순항을 시작했다.

14일 오후 10시15분 같은 장소에서 호주와 2차전을 치르게 되는 한국은 이번 대회 우승과 한국 선수 최다골 기록을 노리고 있다.

◇징크스 탈출 '기본 중네' = 한국은 11일 치러진 바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 승리를 통해 목표 달성의 첫걸음을 상대적으로 내디뎠다. 이날 승리로 태극전사들은 그동안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1차전 무승부' 징크스를 깨 곳이 날랐다.

한국은 지난 1996년 대회부터 지난 2007년 대회까지 4회 연속 1차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힘들게 조별리그를

치러야만 했다. 하지만 바레인을 꺾은 태극전사들은 조별리그 통과에 한 걸음 다가서면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2차전 상대인 '난적' 호주를 만나게 됐다. 우승을 향한 첫 관문을 넘은 조광래 감독은 51년 만의 우승으로 역대 3회 우승에 빛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이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각오다.

◇최다골 기록을 깨라! = 한국은 이번 대회에 앞서 총 11차례 아시안컵에 출전해 50경기를 치르면서 23승14무13패를 기록해왔다. 이런 가운데 바레인에 이겨 한국은 24승14무13패로 승수를 올렸다.

더불어 구자철이 2골을 터뜨리는 활약으로 한국은 역대 통산 81골을 넣어 '80골 고지'를 넘어섰다. 통산 106골을 기록한 이란에 이어 아시안컵에 본선 진출에 성공했던 32개국 가운데 2위의 기록이다.

두 골을 맞본 구자철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으면서 2선에서 공격 기회가 많아진 만큼 역대 한국 선수 1개 대회 최다골 기록도 노려볼 만하다.

한국은 지난 1980년 쿠웨이트 대회 때 최순호(강원 감독)가 7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치며 역대 한국 선수 1개 대회 최다골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조광래호 키는 기성용... 10.59km 그라운드 장악

'더블 드래곤' 기성용(22·셀틱·사진)과 이청용(23·볼턴)이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에서 가장 먼 거리를 뛰어다녔다.

기성용은 11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10.59km를 뛰어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기성용에 이어서는 이청용이 10.47km를 뛰어 2위에 올랐고 이용래(25·수원)와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

티드)이 10.42km와 10.09km를 달려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속도를 따져본 결과 이날 혼자 두 골을 터뜨린 구자철(22·제주)이 시속 7.7km의 속도로 달린 가장 빨랐고 이청용이 시속 7.6km로 두 번째

였다. 바레인에서는 아이시와 마흐무드 압둘라흐만(시속 7.4km)의 속도를 냈다.

전체 슈팅에서는 한국이 21-12로 바레인보다 많았지만 유효 슈팅만 따지면 6-5로 오히려 바레인이 1개 더 많았다. 한국은 유효슈팅 5개 가운데 3개를 구자철이 시도해 2골을 넣었다. /연합뉴스

최경주·강성훈·김비오 코리안 군단 하와이는 '약속의 땅'

14일 PGA 소니오픈 출격

한국남자프로골프가 미국 하와이에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코리안 골프군단은 14일(이하 한국시간) 하와이의 와이알래이 골프장(파70·7068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2011 시즌을 열어젖힌다.

PGA 투어 시즌은 전년도 우승자들만이 출전하는 현대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로 막을 올렸지만 이번주 개막하는 소니오픈은 140여명의 선수들의 나오는 첫 풀필드 대회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및 한국계 선수는 최경주(41·SK텔레콤),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를 비롯해 PGA 투어 새 멤버로 이름을 올린 강성훈(24·신한금융그룹), 김비오(21·넥슨), 재미교포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 등 6명이다.

제일 먼저 PGA 투어에 진출한 최경주(41·SK텔레콤)가 "미국 무대에 한국 선수 몇명이 뛰느냐는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 한국 선수들끼리 우승을 다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선수들끼리 우승을 다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안군단의 망령 최경주는 하와이 대회를 통산 8승을 올리기 위한 결



의 기회를 삼고 있다. 소니오픈에 아홉차례 출전한 최경주는 2008년 우승을 포함해 모두 다섯차례 톱15 이내에 드는 좋은 성적을 남겼다.

지난 한해 메인스폰서 없이 뛰었던 최경주는 새해에 SK텔레콤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어 와이알래이 골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PGA 투어의 새내기가 된 강성훈과 김비오의 선전도 기대된다.

강성훈은 10대 때부터 미국 무대를 꿈꾸며 미국 전지훈련을 계속해 왔고 김비오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면서 적응력을 키워왔다.

여기다 앤서니 김과 나상욱, 위창수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코리안군단은 결코 외롭지 않은 싸움을 벌일 수 있다. /연합뉴스

박주영의 AS모나코 성적 부진에 감독 경질 메시, 이니에스타 누르고 'FIFA 발롱도르상' 초대 수상

박주영(26)이 뛰는 프랑스 프로축구 1부리그 AS모나코가 프랑스컵 조기 탈락과 성적 부진을 이유로 라콩브(56) 감독을 경질했다.

AS모나코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프랑스컵 64강전에서 탈락하고 나서 에피에는 프랑지 구단주가 이사회를 논의했다"며 "라콩브 감독을 대신해 로랑 바니드(43) 감독이 팀을 이끌게 된다"고 밝혔다.

AS모나코는 지난 9일 프랑스컵 64강에서 5부리그의 아마추어팀인 SO 샹테리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패하는 굴욕을 당했다. /연합뉴스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아르헨티나)가 국제축구연맹(FIFA)과 프랑스 풋볼이 함께 선정하는 'FIFA 발롱도르(Ballon d'or)상' 초대 수상이자 됐다. 메시는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기자단의 투표에서 22.65%의 지지를 얻어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의 우승을 이끈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를 누르고 FIFA 발롱도르 초대 수상이자 됐다.

FIFA 발롱도르는 전 세계 선수를 대상으로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이 뽑는 'FIFA 올해의 선수상'과 유럽 클럽 선수 가운데 기자단 투표로 선발하는 '발롱도르'를 합친 상이다. /연합뉴스

손영호 박사의 로벤테라피 제품으로 관리하는 전문 관리샵입니다.

닥터손 로벤케어

이런분께 권합니다!

- ✓ 오십견
- ✓ 엘 보
- ✓ 관절염
- ✓ 디스크
- ✓ 여드름
- ✓ 간질·우울증
- ✓ CT, MRI 이상없는데 고통을 느끼시는 분

손영호 의학박사가 개발한 로벤테라피란?
 여러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다양한 천연성분을 가지고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탄생한 제3세대 아로마테라피입니다. 기존의 아로마테라피와는 효과와 용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로벤테라피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여러증상에 오일을 피부에 발라 10여분동안 마사지 하여 통증이나 각종 증상을 없애는 기적의 자연제품으로 현재 전국 많은 병원에서 사용중이고 전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속는셈치고 한번 다녀가 보십시오.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방문 환영 전화예약하시거나 디알 필요 없습니다)

본 오일을 피부에 발라 20분 마사지/놀랍고 기적적인 효과/확신이 안가신분/무료상담, 방문환영 처음엔 의심하던 고객님이 1회관리후 통증이 없어지는 탁월한 변화를 체험하신후 많은 지인들을 모시고 오십니다!!

“로벤케어의 모든 관리는 책임제 입니다” 책임제란? 효과없을시 돈을 받지 않는 제도 입니다.

닥터손 로벤케어 개설문의 환영 모집지역 : 광주,전남북지역 소자본투자/안정된수익

* 위의 질병들을 가장 빨리 관리함에 있어서 로벤은 이미 세계최고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8, 신동아 9월호)

닥터손 로벤케어 roben care 상무점

TEL. 062)376-5557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77-3 라인대주 APT 정문앞 2층201호 (지하철 상무역 4번 출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OPEN 기념!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한식 20가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특별시설안내

- 5F 벨라지오홀(웨딩홀) 카네기홀(연회장)
- 4F 객실, 신부대기실
- 3F 객실
- 2F 객실, 워트니스센터
- 1F 프런트,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연회상당실
- BF1 대연회장, 페백실

웨딩홀 객실

*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 전객실 인터넷 사용

객실예약 |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플렉서 옆) | www.hotelarthall.co.kr